

# 김춘환 교수

## 민사소송법 **슬림한 조문집 특강**

■ ■ 담 당 김춘환 교수

■ ■ 강의일정 2015년 10/1(목) ~ 10/8(목), 저녁, 총 7 회, 월~토  
저녁 7:00 ~ 10:30  
※ 10/3(토) 오후강의(2:00~5:30)

■ ■ 교 재 김춘환의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 (저자)  
+ 법전(필히 지참)

■ ■ 수강특전 - 선착순 10명 교재 무료제공(수강등록 시점 기준)  
- 수강료 할인 : 105,000원 (타 할인혜택 적용불가)

■ ■ 강의방향 1. 민소법 공부는 조문이 중심  
“민사”“소송”“법”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즉 민사사건) 당사자가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제도(민사소송)를 규정한 절차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절차법의 특성상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데, 민소법 조문 자체가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문 중심의 공부  
는 민소법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 2. 조문에 대한 중요 판례, 학설 정리

민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중요 판례, 학설 등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의 출제경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 최신 판례까지 정리합니다.

### 3. Leading Case 숙지

선택형 뿐 아니라 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게, 조문에 대한 leading case(先例)를 들어 조문을 설명합니다.

### 4. 중요 선택형 문제 제공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조문집에 대한 강의 중간 중간, 중요 선택형 문제를 해설 합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한 흐름을 익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Q & A □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강생 Q & A

### 1.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서술형뿐만 아니라 선택형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사법시험 보다 공부량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법시험에는 없는 유형을 치고 있으므로, 선택형 난이도 자체는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민법과 비교해서). 슬림한 조문집이나 핵심암기장 강의를 듣고, 교재를 숙지하면 선택형 문제는 9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 2. 그러면 사례형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기존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사례형은 민법과 민소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민소법 쟁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과는 달리 민소법 쟁점은 어려운 쟁점이라기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물어보고 있으므로, 제 교재를 잘 숙지하면 쟁점에 대한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 3. 꼭 김춘환 강사를 선택해서 들을 필요가 있나요?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모두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모두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법시험 강의 11년(사례형 민소법), 공무원 강의 6년(선택형 민소법)의 경력으로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2회부터 변호사시험 대비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합격생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를 믿고 따라 오시면 민소법 고득점을 약속합니다.

###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 민소법, [cafe.daum.net/chunzivilprozess](http://cafe.daum.net/chunzivilprozess)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항소심법원은 甲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변호사시험>

- ①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 ④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 조문집 : 31면, 86면, 143면, 핵심암기장 : 18 ~ 19면, 89면, 381면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변호사시험>

- ①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⑤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위와 같이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조문집 : 244면, 246면, 핵심암기장, 64면, 103면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변호사시험>

- ①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③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

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 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파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 조문집 : 244면, 246면, 핵심암기장 126면, 128면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변호사 시험>

- ①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 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조문집 : 100면, 159면, 핵심암기장 141면, 143면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변호사시험>

- 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③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 ④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한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 조문집 : 175면, 177면, 216면, 핵심암기장 : 114면, 270면, 272면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횟수	날짜	강의내용	교재
■ 제 1 회	10/1(목)	제1조 ~ 제64조	~ p. 59
■ 제 2 회	2(금)	제87조 ~ 제197조	~ p. 141
■ 제 3 회	3(토) 오후2:00	제198조 ~ 제232조	~ p. 201
■ 제 4 회	5(월)	제233조 ~ 제265조	~ p. 261
■ 제 5 회	6(화)	제266조 ~ 제384조	~p. 317
■ 제 6 회	7(수)	제385조 ~ 제461조	~ p. 371
■ 제 7 회	8(목)	제471조 ~ 제502조	~ p. 391